■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639-679.
http://doi.org/10.17948/kcs.2019..84.639

중립불가능의 시대와 회색의 좌표
—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지리산〉에 나타난 지식의 표상을 중심으로—

이광욱(李侊昱)*

목 차

1. 들어가며 :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원
2. 일제 말기의 '위험한 독서'와 지식인의 굴레
3. 공적 교육의 재건 서사와 교육적 진공상태에 대한 문제제기
4. 주체적 지식 수용의 서사와 식민성의 극복 도정
5. 나가며 : 정치공학의 시대 속 중립주의자의 고투

국문초록

본고는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에 나타난 이병주의 문제의식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두 소설의 주동인물인 유태림과 박태영은 극심한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도 중립성을 지키려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태도는 '회색의 사상'이라 일컬어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병주가 내세운 중립주의는 양 진영으로부터의 비난을 감내하면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견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이며 해방 후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식민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아야 한다.

주목할 것은 이병주가 중립주의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지적 편력과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묘사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한다는 점이다. 유태림과 박태영

*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동화・한국어문화전공 조교수.

은 공적 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일제 말기를 거치며 지적 공백기를 경험한 인물들이다. 심지어 일제 말기의 학교기관은 학병을 동원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지적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던 독서는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불온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지식의 유통망 속에 개입하는 행위는 곧 정치적인 것으로 맥락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은 일종의 짝패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유태림과 박태영은 이른바 학병세대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이후의 행보는 유의미한 대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해방 후 교사가 된 유태림은 진영논리에 따라 분화된 학생들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하며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여운형 암살 사건과 함께 본격적으로 단정반대 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한국전쟁과 함께 행방불명된다. 〈지리산〉의 후반부는 〈관부연락선〉의 서사가 멈춰선 그 지점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박태영은 자유주의, 허무주의, 공산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홀로 '빨치산'이 되는 길을 택한다. 그가 지난한 지적 편력의 끝에서 발견한 근본적 욕망은 어디에도 복속되지 않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었다. 비록 그들의 이야기는 중립주의의 실패담으로 귀결되지만, 이를 통해 이병주는 소설 속에서의 실패가 소설로서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다.

주제어: 이병주, 〈관부연락선〉, 〈지리산〉, 지식, 중립주의, 화색의 사상.

1. 들어가며 :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원

한국전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시련으로 기억되는 사건이다.[1]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의 공식적인 숫자만도 수십만에 달하며, 집계되지 않은 민간인 희생자까지 합하면 그 피해는 쉽게 추산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전쟁은

1) 최봉대는 '6·25 사변', '한국동란', '조국해방전쟁', '항미원조전쟁' 등과 같이 '한국전쟁'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전쟁 당사자들의 차별적인 입장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불려져 온 이름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 전쟁이 1945년의 '해방'과 더불어 부과된 잠정적인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한반도 내의 치열한 대항관계의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남북한, 미국, 중국의 정규적인 군사력이 한반도를 그 전역(戰域)으로 하여 상호충돌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의 연계 하에서 위치지워져야 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 전쟁을 '한국전쟁'으로 부를 것이라 규정한다. 최봉대, 「한국전쟁의 기원과 그 성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태암, 1990, 16면. 본고 역시 그의 논의를 참고하여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이란 표현은 전쟁의 국제전적 성격과, 이후 세계적 냉전 체제와의 연결을 고려했을 때 가치중립적인 용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직된 시장경제우선주의와 대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배태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국제전의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한국전쟁은 전 세계의 냉전질서를 고착화시킨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냉전연구에 있어 핵심적 논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한국전쟁의 기원은 냉전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차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해석되었다. 주로 정치학, 외교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냉전 연구가 전통주의적 시각과 수정주의적 시각, 후기 수정주의적 시각을 거치며 성과물을 축적해가는 가운데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논의 역시 외인론에서 내인론을 아우르는 스펙트럼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방대한 연구의 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전쟁을 사후적으로 해석한 것에 가깝다. 즉, 냉전체제가 고착화된 시기의 시각을 한국전쟁기에 소급하는 방식은 선규정된 문제틀을 외삽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체로서의 한국전쟁을 파악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전쟁을 보다 시공간적 근거리에서 반영하고 있는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세계적 냉전구도 하에서 정초된 한국전쟁 연구란 냉철한 인식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적화통일론'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인식틀은 국가 체제를 정당화하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북한에서는 남한 체제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작업을 끊임없이 해 왔다. 문학 역시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재생산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성과들은 주류 담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춰진 국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태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국전쟁을 다룬 국내외의 연구들을 개괄해보면, 한국전쟁의 발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눈에 파악되기 어려울 정도로 다변화되어 있으며, 전쟁의 책임 또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전가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이러한 복합적 성격은 한국전쟁의 문학적 재현 역시 다양한 면모를 띠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본다면 이는 ① 관 주도의 반공문학, ② 반전의식을 내세우는 휴머니즘 문학, ③ 실존주의와 결합한 탈역사적 재현의 문학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과 더불어 본고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지형도를 다루는 작품 역시 한국전쟁을 다룬 소설의 중요한 유형으로 설정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보다 폭넓은 시야 속에서 한국전쟁을 조망하는 가운데, 식민지기부터 해방기, 한국전쟁기와 전후 체제에 이르는 연속적 전개과정에 주목하는 소설 유형이 그것이다. 이 관점에서 본고가 논의하고자 하는 작품은 이병주의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이다. 〈관부연락선〉은 해방을 전후한 10년간을 소설적 배경으로 삼아 격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 속에서 주인공 유태림이 보여 준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그려낸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유태림의 특유한 중립주의가 형성되는 원천을 일제 말기의 체험까지 소급해서 보여준다는 점이다. 〈지리산〉 역시 한국전쟁 기원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던 남로당의 빨치산 투쟁을 일제 말기의 항일 투쟁과 연결시켜 다루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모두 한국전쟁의 원인을 일제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추출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에 값하며, 이러한 시각은 브루스 커밍스가 제기한 후기 수정주의적 관점의 한국전쟁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을 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 나아가 이병주의 소설은 극복되지 못한 식민성의 문제가 1960년대 후반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비로소 유효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다.[3]

---

2)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성신여대 출판부, 2006; 김학준, 『한국전쟁—원인, 과정, 휴전, 영향』(수정증보판), 박영사, 2010;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나남, 1996; 소진철, 『한국전쟁 어떻게 일어났나』, 한국학술정보, 2008; 이완범, 『한국전쟁—국제전적 조망』, 백산서당, 2000;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역, 일월서각, 2001; 와다 하루끼,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오코노기 마사오, 현대사연구실 역,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한국전쟁 : 미국의 개입과정』, 청계연구소, 1986.

3) 김성환, 「식민지를 가로지르는 1960년대 글쓰기의 한 양식—식민지 경험과 식민 이후의 관부연락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6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이병주는 별도의 등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주로 대중지에 작품을 연재했던 작가였다.[4] 이러한 '문단의 방외인'적 성격은 그가 문단사 중심의 시각을 견지하던 학계의 주목을 끌지 못한 주된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병주의 이력에 따른 편견과는 별개로, 대중적인 호응을 받았던 그의 작품세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게 됨에 따라, 그가 타계한 1990년대 이후에는 학계의 관심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연구경향은 무엇보다도 이병주 특유의 소설적 형식에 대한 논의였다. 노현주는 그가 관심을 표명했던 뉴저널리즘 문학[5]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이병주의 글쓰기 방식을 규명하고자 했다. 뉴저널리즘이란 저널리즘에 의해 공식화된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탄생한 1960년대 미국의 신문학경향이다. 노현주의 의견에 따르면, 이병주의 텍스트는 허구성에 기반한 소설양식의 틀을 벗어나서 주석과 증언, 역사 기록물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구성해내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의 증언을 통해 공식 담론의 허구성을 폭로할 수 있다는 뉴저널리즘의 방법론과 공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자에 따라 개념화하는 방식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비소설적 구성방식은 상당수의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6]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최신 문학경향의 모범적 적용이나, 반소설과 같은

---

4) 이병주는 경남 하동에서 출생하여 일본 메이지대학 문예과와 와세다대학 불문과에서 수학했으며, 진주농과대학과 해인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부산 『국제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을 지냈다. 이후, 필화사건을 겪고 2년 6개월간 복역하였고, 마흔네 살의 나이로 중편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세대』에 게재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5) 뉴저널리즘 문학은 언론 매체들이 혼란한 사회의 문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이미지를 획일화시키고 왜곡하는 현실에 대항하고자 탄생했다. 뉴저널리즘 작가들은 '공인된 원형'을 만들고 그것을 영속화하려는 언론 매체의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미 제시된 틀에 사실을 끼워 맞추어 많은 개별 사건들을 동일한 형식으로 제시하는 언론 매체의 기만성을 비판했다. 전통적 저널리즘이 제시하는 상투적 원형—스테레오타입—에 따르는 보도는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객관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더 실체의 허구화를 심화시킨다고 보았던 것이다. 때문에 뉴저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현실을 진실되게 기술할 것인가'를 일차적 관심으로 여긴다. 그들은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의 진실성과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결합하려고 시도한다. 노현주, 「정치의식의 소설화와 뉴저널리즘—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42집, 우리어문학회, 2012.

6) 예컨대, 곽상인은 '기록문학', '증언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이병주의 소설방법론을 파악하고 있다. 곽상인,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인물의 내면의식 고찰—유태림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60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전위적 미학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러한 구성방식의 저변에 드리워진 작가의 의도와 지향을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소설구성방식을 이병주의 작가의식과 연관하여 해명하고자 하는 논의들 역시 다수 제출되었다. 특히 〈지리산〉에 작가 스스로 부여한 '실록 대하소설'이라는 관식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어 왔다. 김윤식이 지적한 것처럼 '실록소설'이라는 용어는 역사와 소설이라는 양 측면의 결여태로 남게 될 위험성을 담지한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주가 이 요령부득인 상태를 적극적으로 지향하게 된 원인은 우선 실증적 텍스트의 교직이 민감한 소재를 다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편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박중렬은 공식적 역사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의도적으로 소거된 이들의 삶을 되살리고자 했던 이병주의 역사의식이 '실록소설'이라는 방법론으로 표출된 것이라 평가했다.[8] 즉, 이병주는 빨치산들의 죽음에 내재된 민족사적 고민의 실체를 드러내고 역사적 기록이 외면한 현장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실증적 기록에 의거한 역사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실록대하소설'을 의미심장한 형용모순으로 파악한 황호덕 역시, 역사의 재구축을 위한 작가의 욕망에 주목하여 '겹쳐쓰기'의 방법론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씌어진 다른 책들을 다 덧대면 불허된 혹은 불가해한 사건을 해석해 낼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이병주의 비소설적 글쓰기를 추동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9]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소설에 반영된 자전적 체험을 통해 작가의식의 중핵을 규명하는 것이다. 〈관부연락선〉에 투영된 작가의 학병체험 문제에 주목한 김외곤은 학병 세대의 기본적 의식을 엘리트로서의 자부심과 노예적 수치심의 공존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이병주가 형상화

7) 김윤식, 『이병주와 지리산』, 국학자료원, 2010.
8) 박중렬, 「실록소설로서의 이병주의 〈지리산〉론」,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9) 황호덕, 「끝나지 않는 전쟁의 산하, 끝낼 수 없는 겹쳐 읽기—식민지에서 분단까지, 이병주의 독서편력과 글쓰기」, 『사이』 제10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

한 유태림이라는 인물은 작가의 페르소나와도 같으며, 역사적 허무주의를 내면화한 인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유태림의 허무주의가 소극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 시각 덕분에 좌나 우에 대해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양쪽의 치부까지도 묘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10] 김윤식 역시 일련의 논의를 통해, 이병주의 소설을 '학병세대'의 문제에 귀착시키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전반적인 이병주론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즉 이병주에게는 학병체험에서 기인한 '노예사상'의 극복이 평생의 화두였고, 〈관부연락선〉이나 〈지리산〉과 같은 문제적 작품을 낳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11] 또한 '대설(정치사회적 평론)에서 소설로의 이행'이라는 구도로 제시된 이병주의 편력은 곧 노예사상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도정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병주의 작가의식을 '학병체험'의 극복이라는 개별 주체의 층위에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개별적 주체들이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성장해나가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감지하는 과정에 있다. 즉, 일제의 노예가 되어 대리전을 경험하거나 지리산에 숨어들어야 했던 주인공들이, '한국전쟁'이라는 또 다른 대리전 혹은 내전에 맞닥뜨렸을 때 취할 수 있는 응전의 형태와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두 작품은 일제의 폭력에 의해 형성된 식민주체가 '한국전쟁'이라는 새로운 폭력 앞에서 사태를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병주 스스로가 공언하기도 했던 '회색의 사상'은 단순한 탈정치적 제스처로 독해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12] 〈관부연락

10) 김외곤, 「이병주 문학과 학병 세대의 의식구조」, 『지역문학연구』 제12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5.
11) 김윤식, 앞의 책.
12) 정미진은 이병주의 휴머니즘이 반인간적인 것에 대한 거부만 드러날 뿐 치열한 투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회색의 사상 혹은 개인주의적 휴머니즘이라고 비판받아 왔음을 밝히면서 〈지리산〉의 경우 '빨갱이를 주인공으로 한 용공소설', '고도의 전략적 반공소설' 등 상이한 평가를 받아왔음을 기적하고 있다. 정미진, 「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 혹은 휴머니스트—이병주 사상 재론」, 『배달말』 제63집, 배달말학회, 2018.

선〉의 유태림이나 〈지리산〉의 박태영은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내면화한 '회색의 사상'을 편의주의적 발상이나 보신주의로 평가절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평전은 학병세대의 내면을 통해 독특한 정치의식을 읽어낼 수 있으며 여기에 착목할 때, '인정투쟁'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좌우익의 대립상황에서 이병주가 보여 준 '회색의 사상'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인정투쟁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이다.[13] 본고 역시 '회색의 사상'에 기반한 외줄타기가 기실 가장 치열한 정치적 수행성을 내재한 행위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14] 다시 말해, 단독적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내면적 고투는 당대의 정치적 맥락과 교직되는 가운데, 치열한 사회적 투쟁의 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작가의 독서편력을 살피는 방식은 자전적 체험의 문제와는 또 다른 경험과 인식의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주의 소설에 교직되어 있는 텍스트들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작가의 독서편력에 집중한 황호덕의 논의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15] 특히, 전쟁체제의 돌입으로 인해 공식적인 학교교육의 가능성이 거의 붕괴된 일제 말기 상황에서의 독서행위가 보다 능동적인 지식의 습득수단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병주의 글쓰기에 틈입하는 텍스트들은 그의 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결절점이 될

13) 이평전, 「이병주 소설에 나타난 인정투쟁의 논리와 전개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2집, 한국문학과 비평학회, 2018.

14) 한편, 이병주가 견지한 '회색의 사상'은 해방기에 활동한 '중간파' 문인들의 행보와 나란히 놓고 볼 때 일종의 역사적 좌표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개별적인 실천의 양상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은 좌우 편향의 문단에 회수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으며, 냉전 체제의 논리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박연희는 세계사적 전환기를 탈식민적 민족 표상으로 시화한 김기림, 배인철, 박인환, 김광균 등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했다. 박연희, 「해방기 '중간자' 문학의 이념과 표상 : 김기림의 민족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6집, 상허학회, 2009. 또한 권보드래는 최인훈이 보여주었던 중립화론의 문화적 함의를 분석한다.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제34집, 상허학회, 2012. 한편, 염상섭의 해방기 활동에 주목한 장세진은 중간파의 글쓰기와 재현 전략을 참조할 때 이 시기 염상섭의 소설을 보다 면밀하게 읽어낼 수 있으리라 제안하고 있다. 장세진, 「재현의 사각지대 혹은 해방기 '중간파'의 행방」, 『상허학보』 제51집, 상허학회, 2017.

15) 황호덕, 앞의 글.

수 있다. 더불어 대상 작품들의 주인공들이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과정은 곧 지식인적 주체를 형성하고 보증해나가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지식의 문제는 이병주 소설의 핵심적 모티프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

한편, 이 모티프가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받아들이는 소통의 체계인 '교육'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한 최현주는 작가 이병주와 〈관부연락선〉의 이념적 한계를 왜곡된 식민지 교양주의 교육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17] 즉, 〈관부연락선〉은 식민적 배치를 부정해야 할 피식민지인의 지식인이면서도 식민지 본국의 지식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 이중구속의 심리상태, 즉 제국주의 교육의 시스템에 의해 배치되고 내면화된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정호웅은 교사 역할에 전력을 기울인 지식인 유태림의 문제의식을 재조명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축적된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차적인 것이라 밀어내었던 이데올로기 지배의 시대를 반영하고 비판하는 거울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18]

더 나아가 본고는 이병주가 관심을 기울인 '교육'의 문제가 한국전쟁의 또 다른 기원으로 조명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해방기 교육의 진공상태가 실질적인 혼란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일제 말기 제국교육의 식민성 문제까지 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 '지식'의 문제가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모티프로 기능하는 가운데, 식민지기에서 전후

16) 이병주가 형상화한 '지식의 모티프'는 다층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는 엘리트로서의 자의식을 의미하는데 이를 구성하기 위한 '앎에 대한 욕구'는 자기 충실성과 관련된 진정성의 측면과 연결된다. 또한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실천의 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제도나 시스템의 측면과 접속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식민지 교육의 왜곡된 실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해방기 이후 공적 교육의 재건 서사로 이어지게 된다. 가장 심층적인 층위의 '지식 모티프'는 사회적 실천을 제약받고 인정을 얻는 데 실패한 주체가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내면적 고투와 연관된다. 즉, 이병주에게 있어 지식의 문제는 곧 자기 충실성의 문제였으며, 사회적 인정투쟁의 과정인 동시에 단독적 주체성을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척도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17) 최현주, 「〈관부연락선〉의 탈식민성 연구」, 『배달말』 제48집, 배달말학회, 2011.

18) 정호웅, 「해방 전후 지식인의 행로와 그 의미—이병주의 〈관부연락선〉」, 『현대소설연구』 제2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한국사회에 이르는 역사적 연속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의 주요 인물들이 사제관계를 축으로 하여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또한 이 문제는 5년여의 시차를 두고 창작된 두 작품을 통해, 주인공의 지위를 반대로 형상화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바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은 일종의 짝패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에 본고는 교사의 시각으로 펼쳐 보인 〈관부연락선〉과 학생의 시각에서 서술된 〈지리산〉 사이에 가로놓인 연속성과 격차를 해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일제 말기의 '위험한 독서'와 지식인의 굴레

소설에서 주인공의 직업은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을 가진 인물은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게 되는바, 그 공간에서 만나는 인물들과 주고받는 갈등 내지 동조는 서사를 진행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의 주인공들이 지식의 유통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을 가졌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관부연락선〉의 주인공 유태림은 해방기에 'C고등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는 인물로 그려지며, 〈지리산〉에서는 주인공 박태영의 학생 시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후 박태영은 학병을 피해 지리산에 숨어들었을 때 두령 하준규의 참모 역할을 했고 해방기에는 남로당의 교육책 역할을 하는 한편, 전쟁 이후에는 종군기자 활동을 하게 되는 등, 그의 생애 전반은 지식의 유통과정을 매개로 하여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인공의 활동 내력에 집중해본다면, '지식'의 문제는 이병주에게 단순한 소재 차원을 넘어선 천착의 대상이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학교는 지식을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회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작품은 일제 강점기, 특히 일제 말기가 학교라는 공적 영역을 통한 교육을 사실상 무화시킨 시기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태림은 독서회 사건으로 인한 검거를 피하기 위해 유럽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며, 귀국 후에는 학병에 징집되게 된다. 즉, 식민지인 유태림에게 있어 공적 교육이라는 장은 거대한 여백으로 남겨진 곳에 불과했다. 학병 징집 시절 그가 소속된 치중대는 '장교, 하사관, 말, 그리고 병정'이라는 표현에서 명시되듯, 동물보다도 못한 처우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유태림은 유럽 생활을 통해 선진화된 학문을 잠시나마 접한 이였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지위를 견뎌야 하는 데서 느낀 모멸감은 극심했을 것이다.

〈관부연락선〉이 학병 체험으로 인한 식민지인의 모멸감을 그리고 있다면, 〈지리산〉은 식민지 교육의 왜상을 보다 본격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규와 박태영의 진주고보 시절과 일본 유학시절을 다룬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교육정책이 우민화 정책에 기반한 것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더욱이 일제 말기는 내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일차원적인 목표마저도 자주 무시되던 시기였으며, 학생은 종종 예비군인의 성격으로 취급되곤 했다.[19] 이규와 박태영이 재학했던 'C고보' 역시 이러한 환경에 속박된 곳이었다. 물론, 이병주는 학생들을 군사교육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라타 교장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영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구사마 선생처럼 양심적인 일본인들을 함께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학교로부터 해임당하고 만다는 점에서 시대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었다. 특히 하라타 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이또 교장은 철저하게 학교를 병영화하고자 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바, 양심적 일본인들의 퇴장은 공적 교육에 걸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마저도 사라진 시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말기는 이러한 공적 교육의 부재상태가 내지까지 확산된 시기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규는 일본 유학을 통해 지식에 대한 갈망을 해소할 수 있

19) 김경미는 식민지 내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인정받던 경기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의 체험수기들을 분석하면서 황민화 교육을 충실하게 실천했던 파시즘 교육체제가 식민지 조선인의 내면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지적한다. 엘리트로서의 자존감은 교육기관의 체험을 통해 부끄러움과 우울함의 정서로 전환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김경미, 「식민지교육 경험 세대의 기억—경기공립중학교 졸업생의 일제 파시즘 교육체제하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27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5.

으리라는 희망을 갖지만, 그가 유학하던 경도제대 역시 전시논리에 의해 좌우되던 공간임은 마찬가지였다. 독일에 의해 프랑스가 함락되던 다음 날의 대학 수업들을 그린 장면은 이러한 문제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일에서 철학을 전공한 H교수는 퇴폐에 찌든 프랑스를 찬란한 독일정신이 심판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나치즘의 승리를 정당화한다. 철저하게 체제 논리에 포섭된 그가 '윤리학'을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양심적인 태도를 견지한 I교수와 K교수 역시 무력한 인물이기는 마찬가지다. I교수는 H교수의 태도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프랑스어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데 집중할 뿐이다. 학생들은 문명 비판가로 이름이 높던 K교수의 수업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학생들과 함께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애통해 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교라는 공적 영역을 통한 교육이 무력화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가감 없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는 책이었다. 지식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책은 지식의 창구였으며, 독서는 지극히 사적인 방식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지적 소통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병주는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더욱 '위험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공적 교육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 자체는 지적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그칠 뿐이다. 반면, 독서를 통한 지식의 주체적 습득은 제국의 폭력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계기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뭇 문제적이다.

> "그 책은 위험한 책이 아닙니다. 읽어 보시면 알 겁니다."
> 겁에 질려 경애는 겨우 이렇게 대답했다.
> "위험하고 안 하고를 묻는 것이 아냐. 이 책을 누구헌테서 받았는지를 묻고 있단 말야."
> 형사의 말이 약간 거칠어졌다. 서경애의 눈앞으로 유태림의 얼굴이 스쳤다. 부드러운 눈, 넓은 이마, 고요한 몸가짐, 그 이름을 들먹이기만 하면 유태림은 당장 이곳에 끌려와 지금 경애가 당하고 있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경애는 꼭 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 "그 책은 위험한 책이 아닙니다. 나쁜 책이 아닙니다."
> "그런 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눈에 불이 튀었다. 아찔했다. 야무지게 경애의 따귀가 갈겨진 것이다.[20]

〈관부연락선〉에 등장하는 서경애는 학생 시절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유태림의 서가에서 책 한 권을 빌린다. 러시아에서 출간된 〈New Russia Primer〉라는 책은 영역되면서 역자의 비판적 논평이 덧붙여진,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산주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들은 '러시아'라는 글자에만 집중하여 서경애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유태림을 보호하기 위해 덧붙인 변명이 오해를 낳게 되면서 일개 학생에 불과했던 서경애는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고문과 감금에 시달리게 된다.

이와 같이 식민지 시대에 독서라는 행위는 책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수용자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지리산〉에도 이러한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중학생에 불과했던 박태영은 고리키의 작품을 읽고 이규에게 감상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다. 또한 감상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규 역시 체포되게 된다. 그들은 하라다 교장의 간곡한 설득에 힘입어 무사히 풀려나오게 되지만, 이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식민지 규율권력의 존재를 절감하게 한 계기를 제공했다. 사건 이후 하라다 교장이 그들에게 전한 말은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 읽어서 안 되는 책이란 없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책이 있으니 그걸 다 읽을 수는 없다. 좋은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최선 최고의 책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최선 최고의 책도 때와 장소를 가려 읽지 않으면 최악의 책이 되고 만다. 내가 바라건대, 너희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진 자기가 읽을 책에 관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도록 해라. 선생님의 지도 없이 읽을 책은 대학을 나온 후 읽어도 된다. 내 말의 뜻을 알겠지? 오늘은 이 부탁만 하겠다....."[21]

하라다 교장 역시 '최선 최고의 책'이 지닌 가치를 긍정하지만 그것을 최악으로 만드는 때와 장소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는 일제 말기에 올바른 '지식'의 유통 자체가 곧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심적인 교육자가

20) 이병주, 『관부연락선』, 동아출판사, 1995, 58-59면.
21) 이병주, 『지리산』 1권, 기린원, 1985a.

공적 기관인 학교에서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언이란 독서의 시기를 유예하여 몸조심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공적 교육과 사적 독서를 통한 지식의 유통 가능성이 모두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일제 말기에 공적 교육의 체계는 붕괴되었고,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독서 역시 정치적인 검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곧 해방기의 지식인적 주체를 형성한 지식 유통환경의 문제였음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해방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일제의 교육체제를 통해 양성된 이들이었고, 특히 젊은 지식인들은 학병으로 대표되는 교육적 공백상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획득해 낸 지식의 수준이 실로 보잘것없었으리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관부연락선〉에서 C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준 문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조건을 뚫고 어떠한 경로를 통한 것이든지 일정 수준의 지식을 획득한 이들의 문제도 생각해볼 만하다. 앞서 독서의 문제가 공적 영역을 통한 교육보다 사적인 맥락의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독서가 '위험한' 행위로 규정되었던 일제 말기는 지극히 사적인 행위를 정치적이고 공적인 행위로 바꿔놓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했다. 즉,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행위가 순전한 지적 호기심에 기인한 것일 수 있어도 지식을 둘러싼 통제의 메커니즘에 둘러싸이는 순간, 그 지식을 둘러싼 사회적 함의는 정치적 맥락으로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다. 순진무구한 여학생이었던 서경애가 옥고를 거치는 동안 공산주의자가 되는 이야기나, 박태영과 이규가 민족의식을 자각하게 되고 학병징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이야기는 이러한 변환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의 습득 문제는 실제적인 행동의 문제와 결부되게 되고, 해방기의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어떤 수준에서든지 자신의 지식을 사회적으로

유통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 있으며 외적 강제에 의해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경우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즉, 지식의 사회적 유통에 기여하는 문제는 주체의 정당성을 보증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색인'과도 같은 태도를 취했던 두 작품의 주인공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식인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한 정치적인 삶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프랑스 유학을 선택한 이규와 같이 한반도를 벗어날 경우에만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반대로 유태림과 박태영이 해방기 한반도라는 정치사회적 지형도에 목숨을 담보로 긴박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 휩싸여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중립적으로 해소하려는 유태림의 이야기, 남로당을 비판하여 당적을 박탈당해도 계속 당에 투신하는 박태영의 이야기는 외줄타기와도 같이 위태로운 것이며, 그렇기에 더욱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병징집을 체험했던 이병주의 작가의식 역시 그가 형상화한 인물들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며 형성된 것이다. 그 역시 지식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기를 직접 겪은 이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습득했기에 지식의 사회적 소통 과정에 관여하는 일을 사회적 책무이자 존재의 보증 근거로 삼은 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병주의 소설쓰기 작업 역시 지식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방편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그가 소설 창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그는 정치사회적 논설로 인한 필화 사건 때문에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은 바 있으며, 복역 후 본격적인 소설 창작을 시작한다.[22] 김윤식의 지적처럼, 이병주의 소설창작은 정치사회적 발언이 철저히 통제되는 당대의 제약을 경험한 후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23] 다만 이것을 공적인 글쓰기에 대한 포기로 볼 수는 없

22) 이병주는 『새벽』에 기고했던 「조국의 부재」라는 논설과 『국제신문』 연두사인 「통일에 민족역량을 총집결하자」의 내용이 문제시되어 10년형을 언도받고 2년 6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23) 김윤식, 앞의 책.

는데, 오히려 이병주는 언론인의 지위에서 좌절된 욕망을 소설쓰기에 전이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공적인 글쓰기의 지향점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그가 산문들을 통해 잊혀진 희생자들과 소외된 역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에 착목해 봐야 할 것이다. 제국 권력에 의해 통제되던 일제 강점기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경사된 1950년대의 지식체계는 체제의 공식담론만 확대 재생산했을 뿐이었으며, 실제 사건들은 은폐되거나 삭제되고 말았다. 더욱이 투옥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그는 저널리즘을 통한 접근법이 '위험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병주가 취한 방식은 소설이라는 허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실증적 자료와의 교직을 통해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 그런데 나로선 부득불 이른바 '뉴저널리즘'의 방법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사성과 보고성, 그리고 객관성으로써 이루어진 몇 개의 에피소드가 엮어내는 일종의 분위기를 나타냄으로써 소설의 영역을 좀 더 넓혀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이 무슨 소설이냐고 반문한다면 반소설도 결국은 소설일 수밖에 없다고 대답할 밖엔 없고, 소설이라면 여하간 로만네스트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면 설혹 본문에선 찾아볼 수 없더라도 제목 〈第四幕〉만은 로마네스크하지 않느냐고 변명할 참이다. 굳이 변명을 해야만 소설로서 통하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도리가 없다. 소설도 나 자신도 어떻건 성장해야 한다.[24]

이러한 지향은 이병주가 언급한 '뉴저널리즘'의 방법론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당대 저널리즘의 문제, 즉 스테레오 타입의 확대 재생산이나 내면화된 배제의 매커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허구성의 영역인 소설에 수기나, 재판기록 등을 주석과 삽화의 형태로 삽입하는 것으로 실천되었던 바, 소설을 둘러싼 이병주의 지향은 기실 미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인 영역에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25] 이병주는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극적

24) 이병주, 「제 4막」, 『마술사』, 한길사, 2006, 187면.
25) 〈지리산〉 6권과 7권에 삽입된 '이태의 수기'는 1988년에 출간된 이태의 〈남부군〉의 내용을 거

으로 사용하여 소외된 역사를 실증적으로 재구축하고자 했다. 이것은 그가 자임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했고, 소통에 대한 욕망을 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런데 소설에 제시되는 사건들이 실증적인 것을 지향하면 할수록 허구의 성격에서는 멀어지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 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실증적 태도는 소외된 이들의 흩어진 이야기를 역사적인 견지로 재구축하기 위해서 요청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형상화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강조할수록 그것은 언제나 공권력에 의해 제약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미 공권력의 폭압을 한 번 경험했던 작가 이병주가 소설에서 오히려 직설화법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예컨대, 한일합방과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루어진 유태림의 수기 '관부연락선'은 식민지기뿐 아니라 1970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병주는 신문기사의 삽입이나 주석 등을 통해 그것의 논픽션적인 성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지리산〉에서 형상화된 남로당의 이야기는 소외된 역사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불온하게 여겨지는 것이기도 했다. '공비', 즉 공산비적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공권력에 대항했던 공식적 '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허구로 이루어진 소설의 외관을 취한다고 해도 군부독재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남로당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주가 허구를 강조하기보다는 '실록소설'이라는 제목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지점에서 남로당을 다루고자 했던 이병주에게 참고의 대상이 되었던 텍스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로당을 학문적으로 다룬 최초의 저작들이 등장한 시기가 〈지리산〉의 연재시점과 맞물려 있다

의 옮겨놓은 것으로, 표절 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태는 "나는 이(병주)씨에게 분명히 그 원고를 '참고'하라고 했지 그대로 옮겨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병주는 "인용의 괄호 속에 넣어 '이태의 수기'임을 명시했"고 그의 글을 그대로 실은 건 "이씨의 수기를 원형대로 보전하"기 위한 선의의 발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병주가 미학적인 것의 추구보다는 역사의 온전한 재구축을 원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1973년에 발간된 김점곤의 연구는 해방 후 남로당 투쟁전술의 변화 및 북로당과의 권력투쟁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기원을 설명한다.[26] 이 논문은 한국전쟁을 빨치산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내전적 인식을 국내외 학계에 심어 준 최초의 저작이며, 기존의 관변적이며 천편일률적인 전사의 차원을 처음으로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라 평가된다.[27] 그가 민감한 대상을 무리없이 다룰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 전향했던 인사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토대로 실증적인 연구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신문에 연재된 김남식의 『남로당 연구』는 이병주가 〈지리산〉 속에서 인용한 텍스트였다는 점에서 그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28] 남로당과 관련된 문건들을 정리하여 발간한 그의 작업은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왔던 남로당을 학문의 영역으로 위치시키는 데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실증적 학문의 성과가 이병주에게 미친 영향은 상당했으리라 추정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두 저작의 영향이 〈지리산〉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히려 필화 때문에 옥고를 치러야 했던 이병주의 내력을 감안한다면, 두 저작은 실증주의에 기반한 학문적 태도가 공권력에 의한 검열과 공식 담론의 공고한 벽을 돌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관부연락선〉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재구축하고자 하던 이병주의 욕망은 실증적인 두 저작의 성과와 만나는 순간 남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지리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공적 교육의 재건 서사와 교육적 진공상태에 대한 문제제기

〈관부연락선〉은 주인공 유태림과 관련된 두 형태의 기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유태림이 관부연락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긴 수기가 한

26)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1973.
27) 이완범, 앞의 책, 169-196면.
28)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배게, 1975.

축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한 축은 관찰자인 '나'(이선생)가 유태림과 함께 'C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겪은 일들을 술회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의 주된 서사는 유태림의 해방기 행적을 되짚어나가는 것이지만 중간중간 끼어들고 있는 이 수기는 서사를 분절하는 한편, 사건 진행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재-과거-대과거'를 하나의 소설 공간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일제시기에 기록되고 현재 서술자에게 전해진 '유태림의 수기'는 해방기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자 했던 지식인 유태림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것이 소설 속에 교차적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태림의 해방기 시기를 술회하는 관찰자인 '나'는 그의 태도를 일면 이해하면서도 어느 한쪽도 쉽게 편들지 않는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30년의 시차를 두고 발견된 그의 수기는 '나'에게 유태림을 이해하는 단초로 여겨지고 있는바, 독자들은 중간중간 삽입된 수기와의 결합을 통해 그의 해방기 행적을 재해석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치방식은 곧 유태림의 수기가 그의 특유한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점을 전제한다. 유태림이 '관부연락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민족 모순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만든 계기를 제공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 유학시절 자주 이용하던 '관부연락선' 안에서 조선인 승객들을 감시하는 형사들과 잦은 마찰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중 친구인 최종률이 형사와 마찰을 빚고, 앙심을 품은 형사는 유태림 등이 관여하던 독서회를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여 죄를 덮어씌운다. 그 결과 유태림은 조국을 등지고 유럽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유럽에서 이용한 도버 칼레 간, 르아브르와 사우샘프턴 간의 배들과는 달리 '관부연락선'은 곧 '수인선'과 같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즉, 연락선이 한국 사람을 수인 취급 한다는 것은 지배자인 일본인이 피지배자인 한국인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집약적 표현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관부연락선'은 한일관계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도와도 같은 대상이었다. 이에 유태림은 '관부연락선' 연구를 통해 한일관계의 모순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생각

을 품게 되었던바, 그의 수기는 곧 일제강점기에 대한 지식인 유태림의 문제의식과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관부연락선'은 식민지인으로 살던 유태림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대상이었기에 연구의 동기는 분명 민족적 울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관부연락선'을 바라보는 유태림의 태도는 민족의 구분과는 관계없이 중립적이며 객관적이다. '관부연락선'은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고, 굴욕의 상징이기도 하나, 그것이 민족적 구분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관부연락선은 영광의 상징일 수가 있으며 굴욕의 상징일 수도 있다. 영광이니 굴욕이니 하는 퍼세틱한 표현을 배제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관부연락선은 지금 나의 관심 대상은 아니다. 영광이라고 하고 굴욕이라고 해도 일본인에겐 영광이고 한반도인에겐 굴욕이라고 구분할 생각은 없다. 그저 어떤 사람들에겐 영광이었고 어떤 사람에겐 굴욕의 통로였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한일합방에 공로가 있었다고 해서 영작과 재물을 얻으러 가는 한반도인에겐 영광의 통로일 수가 있었고 가난에 시달려 대륙지방으로 팔려가는 창녀들에겐 비록 그들이 일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굴욕의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29]

이러한 대목은 유태림 특유의 객관적 인식과 대상을 바라보는 중립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즉 유태림은 사태를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비판적 지성의 가치를 신뢰하고 있는 인물이다.[30] 그렇기에 그는 이 문제를 민족적 증오심으로 환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인 친구 E와 함께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그는 한일합방 과정에서 조선의 책임 역시 적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다. 더 나아가 그는 친일파들의

29) 이병주, 앞의 책, 1995, 131면.

30) 다음과 같은 대목 역시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통관하고자 하는 유태림의 비판적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나는 공산주의의 이론을 철저하게 연구해 볼 작정이다. 그래서 그 주의의 생리와 병리에 통달해 볼 참이다.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들이 내건 이상과 그들이 채용하고 있는 방법과의 사이에 있는 모순을 파 드러내 볼 작정이다. 제정 노서아의 차르 정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반항력을 볼셰비키는 감쪽같이 횡령해선 차르 정권에 못지않은 전제정권을 세웠다. 지금 공산당은 해방의 기쁨에 뒤이어 혼란하고 있는 민심을 횡령하려 하고 있다. 나는 횡령의 방법까지를 규명할 작정이다." 같은 책, 300면.

논리에도 개체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낸다. 즉, 조선의 후진성에 대한 뼈아픈 자각을 경험한 이완용이 한일합방을 민족문제의 타개책으로 내세운 반면, 그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송병준은 그야말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노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후 그들의 연구는 송병준을 암살하려다 관부연락선 위에서 투신자살한 '원주신'이라는 청년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의병장 이인영의 심문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발견하게 된다. 유태림은 이를 통해 의병운동이 지닌 아나크로니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역사의 무게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두세 줄의 교과서 서술에 불과한 의병운동 이야기가 실은 "수만명의 희생과 임리한 피가 응결된 행간"을 지녔음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부연락선〉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는 이러한 엄밀한 탐구자세와 객관적 태도가 해방기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그 가치를 잃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지식인 유태림이 마주하게 된 해방기의 교육환경은 이러한 혼란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유태림이 본격적인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C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그야말로 엉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 변명 같지만 엉터리는 나만이 아니었다. 나 말고도 다섯 사람의 영어교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예스'와 '노'를 분간하지 못한 까닭으로 장학사의 실소를 터뜨린 교사도 있었고 흑판에다 A와 Z 두 글자를 굵다랗게 써놓곤 이것만 배우면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것으로 된다고 자못 초연하게 설명하고는 숫제 수업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교사도 있었다. (…) 파리가 왜 앞발을 비비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꼬박 한 학기를 넘겨 버린 동물교사가 있었다. 딴에는 동물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동물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1년이 3백 일이면 3백 일, 2백 일이면 2백 일로 되었으면 편리할 것을 왜 365일로 구분되어야 하는가를 끝끝내 납득하지 못하는 지리교사도 있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주의가 실존주의이며 푼푼이 저축하며 사는 주의가 이상주의라고 설명하는 사회생활과 교사도 있었고 도수체조 한번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체육교사가 유도 5단이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간판을 코에 걸고 으스대고 있었다.[31]

31) 같은 책, 32-33면.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교육환경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사들의 무능력에 있었다. 교사들의 수준은 해방을 통해 전폭적으로 확장된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교육적 진공상태가 지속될수록 학교는 지적 소통의 기관이라기보다는 또래집단의 집산처라는 성격에 그치게 된다. 더욱이 이 문제는 'C고등학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문제가 국제 국내의 정세가 모든 학원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작가의 진단은 학교가 남한 지성계의 수준을 드러내는 일종의 전형적 공간임을 암시한다.[32]

이러한 공백 속으로 밀려들어온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었다. 그 결과 학교는 수업보다는 집회가 주를 이루는 기형적인 공간이 되어갔다. 교사들은 이러한 경향을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고, 정상적인 수업은 더욱더 요원한 일이 되어갈 뿐이었다. 무능력한 교사들로부터 비롯된 수업의 공백 문제가 좌익세력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집회와 동맹휴학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부 양심적인 교사들의 수업 진행마저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게 된 것이다. 더욱이 교사들마저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열되고 말아서, 이 혼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었다.[33]

> 다른 학교의 경우도 비슷했겠지만 당시의 C고등학교는 표면은 미 군정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척했으나 학교의 주도권은 완전히 좌익세력의 수중에 있었다. 교장과 교감, 그리고 몇몇 교사들을 빼놓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의 체통과는 전연 다른 정치단체의 조직 속에 들어 있었고 학생들도 대부분이 학생동맹이란 좌

32) 같은 책, 36면. "이런 상황이었으니 학내의 질서는 엉망이었다. 하지만 학내의 질서를 바로세우지 못한 것을 어떤 특정한 학교의 개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방 직후의 정세, 이어 1946년의 국제 국내의 정세가 모든 학원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3) 김성학은 해방 직후 출현한 교원단체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해방기의 교육 시스템이 관료성과 식민성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념 대립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적 교원조직인 조선교육자협회에 대한 대항으로서 출현한 조선교육연합회는 해방 이전 조선교육회의 식민성, 관료성, 근대성을 온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식민지기 교육의 왜상이 해방 직후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성학, 「해방직후 교원단체의 등장과정과 활동을 통해 본 식민지 교육경험의 지속과 변동」,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 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니 그 조직 속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사제지간이라기보다 동지적인 유대관계로써 묶여 있었다. (…) 이 까닭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학생대회가 열리고, 사흘에 한 번 꼴로 학급집회가 있고, 그 밖에 별의별 구실을 만들어 학업을 거부해도 교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무책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 가운데에는 되레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선동해선 힘겨운 수업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조차 했다.[34]

유태림이 교장의 초청으로 C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된 것 역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는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 엄청난 수재이자, 상당한 학식을 지닌 유태림은 학내의 교육적 진공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태림은 동맹휴학을 반대하기는커녕 그대로 방조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현실타협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태림이 구상하는 이상적 교육의 상태를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확고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는 주체로서 지식을 수용하는 학생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태림은 동맹휴학을 인정하면서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과외 교육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공부하는 학내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해나간다. 이처럼 그의 교육은 수업이라는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배우려는 학생 주체의 자율적인 의지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즉, 유태림은 학생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주체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태림의 성격은 좌익 학생들의 총본산인 '고급 2학년'의 담임을 자청한 후 그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 "텅 빈 흑판, 텅 빈 교단, 텅 빈 교탁 저것을 학생이란 이름의 너희들과 교사라는 이름의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똑똑히 봐둬라! 이것이 오늘날 남한의 교육실정이다." (…)
>
> "누구를 저 교단 위에, 저 교탁 위에 세워야 되겠는가. 누구를 저 위에 모셔야

34) 이병주, 앞의 책, 1995, 37면.

하겠는가. 지도자를 기다리고 교육자를 구하는 남한 실정의 상징적인 의미를 저 텅 빈 흑판, 텅 빈 교단, 텅 빈 교탁이 말해주고 있다. 똑똑히 봐둬라. 철저하게 가슴에 새겨 둬라. 오늘 이 시간이 교실 안에서의 인상이 우리 생애에 큰 의미를 가질는지 모른다."[35]

고급 2학년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동지인 P교사를 밀어낸 유태림을 골탕먹이기 위해 수업 거부를 모의한다. 교단에 선 유태림을 향해 준비된 말들을 차례로 발언하고, 교실에서 퇴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유태림은 교단이 아닌 교실 뒤에 서서 학생들과 함께 '텅 빈 교단'을 바라보자고 말한다. 이는 곧 남한의 '텅 빈' 교육 실정을 학생들 스스로 발견하게 하려는 것인 동시에, 누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할지를 편견 없이 이야기해보자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유태림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참된 스승을 기다리자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유태림의 의견에 공명하는 순간, 학생들이 준비한 비난의 말은 서로의 이해를 위한 토론의 언어로 전화되게 되며, 세 시간이 넘는 토론 동안 학생들은 지적 소통의 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장면은 비판적 주체를 양성하고자 하는 유태림의 교육적 지향이 해방기 정국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마리 중 하나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유태림이 걸고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맥락화된다.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를 지탱하는 사상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야 하는 허무'인 '불모의 허무사상'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통해 유태림은 강철의 사상으로 표상되는 공산주의를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는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태림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 자신의 허무와 싸워나가고자 한다. 그 싸움의 유일한 목적이란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휩싸이지 않도록 온전히 보존하여 졸업시키는 것이다. 이는 허무주의자를 자임한 지식인 유태림에게 있어 스스로가 구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실천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판적

35) 같은 책, 311-312면.

지성인 유태림의 역할이 담임을 맡은 반 하나를 무사히 졸업시키는 데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 학생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천의 시기를 유예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의 역할을 여기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기력한 태도를 내비치게 된다. 여기에서 그의 교사로서의 역할은 양심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시대적 맥락에 포위되고 만 하라다 교장이나 구사마 선생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된다. 유태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 말기 교육의 왜상은 해방기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되지 못한 식민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36]

그런데 이병주가 이 문제를 유태림 개인의 한계라기보다는 중립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시대의 한계와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태림이 마주한 학교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한에 달한 사회의 축약판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고, 퇴학 위기에 처한 문제 학생들을 감싸 안으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그를 우파 교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즉, 그는 좌파 세력이 만들어놓은 교내의 혼란을 시정하고자 노력했을 뿐이지만, 그것은 곧 좌파의 노선에 대한 반발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도치 않게 유태림이 좌파 세력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은 시대적 여건이 만들어놓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지식인 유태림의 주체가 온존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억측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투쟁의 전면에 나서지 않던 유태림이 본격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은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문제였다. '방관자적 태도'를 견지하던 유태림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소시민적 근성을 청산'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단정 수립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36) 이정석은 〈관부연락선〉을 통해 일제 교양주의 엘리트 교육을 내면화한 학병세대의 한계를 읽어내고 있다. 즉, 학병세대의 자유주의적 교양은 단순한 인격주의가 아니라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국가주의적 기획의 산물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정석, 「학병세대 작가 이병주를 통해 본 탈식민의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제33집, 한중인문학회, 2011.

불러올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으로 전쟁의 참화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는 '불모의 허무사상'으로도 돌파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단정 반대운동이 지닌 위상 역시 중도노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좌익과 우익 모두 단정 수립을 찬성하는 1948년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단정 반대론자들의 지위는 남도 북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태림은 양쪽 진영으로부터 모두 공격받는 인물이 된다. 그가 해방기의 혼란 속에서 견지한 양비론적, 중립적 자세는 점차 격화되어가는 체제의 대립 속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몽양 여운형의 암살사건은 유태림이 단정수립 반대운동에 뛰어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설 속에서 여운형은 "우익으로부턴 좌익으로서 적대시당하고 공산당으로부턴 반동시당한" 어렵고 복잡한 처지를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여운형의 노선은 유태림에게 '하나의 가능성'으로 여겨지던 것이었으나, 그는 19세 소년의 손에 허망하게 죽고 만 것이다.[37] 그의 암살 소식을 접한 유태림은 사흘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다.

여운형의 죽음은 그가 더 이상 중립지대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해 간 사건이었고,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단정반대 운동에 참가하게 된다. "좌우가 한창 싸우다가 여운형의 카리스마가 필요할 정도로 시국이 익기를 기다려야 했다"는 그의 안타까운 진단은 그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말이었다.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신 역시 정치적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 이후, 유태림은 여운형의 죽음을 답습하게 된다. 이처럼 여운형은 유태림의 지향과 한계를 모두 보여주는 정치적 인물이었으며, 그의 죽음은 유태림이 대표하는 인간 유형의 상징적 죽음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후 제시되는 유태림의 행적은 뚜렷한 서사를 구축하

37) 김건우의 논의에 따르면 『관부연락선』에서 이병주가 보여준 여운형에 대한 인식은, 해방 이후 좌익계 '학병동맹'의 노선과 같은 것이었다, 해방기 학병동맹은 여운형의 영향권 내에 있었는데, 여운형은 학병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학병동맹은 그런 여운형을 '아버지'로 호명했다. 김건우, 「운명과 원한—조선인 학병의 세대의식과 국가」, 『서강인문논총』 제52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지 못하고, 몇 개의 삽화 속에서 그 흔적만을 드러낼 뿐이다. 이와 같이 형상화된 1948년의 남한은 이병주에 의해 중립적 인간의 한계적 시공간으로 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 주체적 지식 수용의 서사와 식민성의 극복 도정

그렇다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지성의 형상화 문제는 1948년의 한계지점에서 멈추고 마는 것인가? 그러나 〈관부연락선〉이 멈춰 선 지점은 〈지리산〉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고는 앞서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 선행 연구를 언급한 바 있다.[38] 더 나아가 본고는 〈지리산〉이 〈관부연락선〉에서 제기된 주체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관부연락선〉이 교사의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비판적 지성의 한계지점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리산〉은 지식을 습득해나가는 학생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주체로의 성장과정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관부연락선〉은 현실의 정치 문제에 거리를 두고자 했던 주인공이 결국은 이념 대립의 물결 속에 휩쓸려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지리산〉은 역으로 이데올로기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한 인물이 그 안에서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는 한편, 자기반성을 통해 주체성을 획득해가는 보다 역동적인 서사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주인공 박태영의 지적 성장과정과 결부되어 제시되는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마주한 스승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식민지 시기의 공적 교육은 박태영에게 공백의 경험만을 남겨 준 것이었다. 이규가 온정적인 일본인 교육자들의 양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비해서, 박태영은 그들의 온정을 위선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박태영은 식민지 교육이 노예 정신을 강요하는데 불과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규 역시 점차로 박태영의 비타협적 태도에 공명하게 되었던바, 오히려 그들에게 진정한 교육은 학교 바깥에서

38) 정호웅, 앞의 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엄청난 양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던 하영근은 박태영과 이규가 모신 첫 번째 스승이라 할 만한 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세상일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며, 그때까지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점을 강변한다.

> "박 군의 의견은 훌륭해. 기골이 있는 인간이라면 부정이나 악에 대한 철저한 미움을 가져야 하니까. 그러나 박 군과 이 군은 아직 기초 공부를 해야 할 때니까. 그 기초를 쌓기 전엔 미움이니 뭐니 하는 관념을 일시 보류하란 얘기다. 공교롭게도 그 사진을 내 집에서 자네들이 보게 되었기 때문에 책임상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는데, 미움의 대상이 그처럼 막연해 가지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게다. 일본인 가운데도 진정 미워해야 할 사람이 있고 미워해선 안 될 사람이 있다. 삼일 운동만 해도 그렇다. 진정 미워해야 할 부류는 우리 내부에 있을지 모른다. 직접 총을 쏘아 죽인 놈은 일본인이지만, 우리 동족 가운데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도록 한 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워할 건 철저하게 미워해야 하지만, 그러기 전에 미워해야 할 사람과 미워해선 안 될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구별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세상일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진 그런 구별 자체를 보류해 두는 것이 나을 거라는 의견일 뿐이다.[39]

하영근은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양심적 지식인이었으나, 자신의 서가에서 일본군에 의해 처형당하는 조선인들의 사진을 발견한 이규와 박태영에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대상에 객관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견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의 조언이 행동을 자제하고 굴욕을 견디라는 뜻으로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시국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내면화된 식민성의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40]

---

39) 이병주, 앞의 책, 1985a, 93면.

40) 여기서 언급한 식민성이란 주변성에 대한 내면화,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추수하는 태도, 주체의 지위를 욕망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주변성의 문제를 반성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를 지식의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수많은 외국어 장서를 소유한 하영근은 보편적인 지성의 지위를 욕망하는 인물인 동시에, 제국의 통치로 대표되는 현실 질서를 묵인하며 자족적인 세계에 머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문제를 전형적으로 드러내

비판적인 지성을 강조하지만, 그 방향과 소용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영근 개인의 한계이자, 엘리트 기능인 양성에 초점을 맞춰 교양주의를 내세웠던 식민지 교육의 한계지점이기도 했다. 이후 이규는 더 공부할 것을 권하는 그의 조언을 따라 일본에 유학하게 되지만, 박태영은 학비를 대 주겠다는 하영근의 호의마저 거절하고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게 된다. 식민지 시대의 교육을 노예교육으로 여기는 박태영에게 가장 큰 욕망은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며, 이러한 그의 면모는 일본에 유학한 이규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두드러진다. 그는 이규가 유학해 있는 경도제대의 캠퍼스와 삼고의 교정을 한 바퀴 거닐고 난 뒤, 자신은 이곳을 모두 졸업했음을 선언한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교육을 꿈꾸며 일본에 유학하는 이규와는 달리, 박태영은 식민지의 공적 교육을 일소에 붙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가 택한 것은 우유배달을 하며 사는 노동자의 길이었고, 독서를 통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나가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일본인 공산주의자 무나까와는 박태영에게 깊은 감화를 준다.

> "나도 한때 수재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다. 그런데 '수재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그저 기억력이 좋기만 하면 수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수재란 기껏 일신 출세하기에 알맞은 속물일 뿐이다. 수재는 대재가 되어야만 비로소 보람을 가진다. 대재란 기억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직관력이 있어야 하고, 서투른 답안보다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학문하는 방향이 옳아야 한다. 역사상 많은 사상가 철학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굴 선생으로 해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41]

무나까와는 수재로 이름 높던 박태영의 기질을 알아본 인물이다. 박태영 역시 절름발이 우유배달부에 불과한 무나까와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한다. 그는 대정익찬회의 중심인물이자 천황제 파시즘에 경도된 아까마쓰 역시 학창 시절엔 기막힌 수재였음을 이야기해주면서, 수재란 얼마든지 속물이

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1) 이병주, 『지리산』 2권, 기린원, 1985b, 61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어 무나까와는 '대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판단력과 직관력,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누구를 스승으로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문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문제와 행동하는 지성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친 결과 박태영은 자신에게 온정을 베푸는 하영근의 소극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영근은 체포된 후 전쟁에 사용할 비행기를 헌납하는 조건으로 풀려나온다. 박태영은 하영근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그가 잠깐 동안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굴한 짓을 했다는 점에 대해 분개한다. '넓은 교양'과 '훈훈한 인간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삶의 경로를 결정한 박태영에게 있어 최초의 스승이었던 하영근은 이제 '산송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이후, 박태영은 학병 징집을 피해 지리산에 숨어들어 일제와의 싸움을 준비하게 된다. 학병 기피자들이 조직한 보광당은 노예의 지위를 거부하는 한편, 주인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집단이다. 이러한 태도는 유태림의 학병 체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한다. 치중대에서 복무하는 유태림과 유격대에서 활동하는 박태영이 감내한 육체의 고난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육체적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유태림이 '일체의 희망을 갖지 않는' 허무주의자의 길을 통해 노예의 지위를 견뎌내는 반면, 박태영은 '신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신념을 가지고 싸웠을 때 빛나는 승리를 경험해 본 인간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해방기의 유태림과 박태영의 활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처럼 박태영은 유태림과는 사뭇 다른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경계하는 유태림의 목소리는 〈지리산〉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두 소설은 이런 의미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영근이 파견한 권창혁이라는 인물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영근이 유태림과 그 일면목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라면, 허무주의자 권창

혁은 유태림의 분신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보광당을 찾아 지리산에 숨어드는데, 그 목적은 오로지 보광당의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 ① 마지막으로 꼭 일러두고 싶은 말은 자기가 속할 단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지녀야 할 사상을 택하는 데 있어서 조급한 결단을 하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의사상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키울 수가 없는 것이라면 유독한 사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의사상이라도 자기가 주인으로서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수단으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유해한 사상입니다. 조급하게 상전을 장만하는 것 같은 사상의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사상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42]

> ②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이 공산당에 입당하더라도 천천히 입당하라는 충고였소. 일단 입당하면 실망했다고 해서 쉽게 탈당할 수 없는 게 공산당이고, 자칫 잘못하면 평생 동안 낙인을 찍혀 인생에 낙오할 위험마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소.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세대를 백지 상태로 맞이해야 된다고도 하고 싶소. 공산당에 입당하는 걸 서둘 필요는 조금도 없소. 인민과 더불어 살 포부가 있다면 그만 아니겠소. 공산당 입당은 아무리 늦어도 지나치게 늦진 않을 거요.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에 있어서의 행동이오. 미리 공산당에 사로잡히면 정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현실 감각을 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미리 짐작해 둘 필요가 있소."[43]

①은 유태림이 'C고등학교'를 떠나며 학생들에게 남긴 고별 연설의 일부이다. ②의 진술은 권창혁이 공산당 입당을 두고 고민하는 보광당의 청년들에게 진로를 쉽게 결정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대목이다. ①에 비해 ②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이 두 진술은 한 인물의 발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닮아 있다. 〈관부연락선〉의 유태림이 견지한 '불모의 허무사상'은 허무주의자 권창혁의 입을 통해 다시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박태영과 하준규, 노동식이 거물급 공산주의자 이현상의 감화를 받으면서도 공산주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줄곧 공산주

42) 이병주, 앞의 책, 1995, 554면.
43) 이병주, 『지리산』 3권, 기린원, 1985c, 112면.

의에 대한 비판자 역할을 자임한 권창혁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44]

그러나 주인이 되기를 갈망하던 그들은 스스로를 신념 없이 살 수 없는 인간형으로 규정해나간다. 그런 그들에게 신념의 근거가 되는 사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권창혁의 허무주의는 비판을 위한 것일 뿐 정치적 실천 경로가 되어주지는 못했다. 결국 그들은 권창혁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에 입당하여 남로당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후 작가는 대단한 수재였던 박태영이 상명하복만이 존재하는 당의 조직 속에서 기계와도 같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냉소적으로 그려내고 있다.[45] 부산과 하동에서 노동자 농민들을 이끌던 노동식과 하준규 역시 당의 피상적인 정세판단 속에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 지리산에서 빨치산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들은 너무 쉽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인물로 그려진다. 보광당의 핵심인물들이 권창혁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모두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해방기 남한의 지식 사회가 거대한 진공상태에 다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외래 사상에의 굴종을 낳을 수밖에 없었음을 가리킨다. 이는 일제시기에 경험했던 지식의 식민성 문제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46]

---

44) 박태영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공산당 입당을 권유하는 이현상에게 "당에서 우리를 심사해야 한다면 그 심사를 받기 전에 우리도 당을 심사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반격한다. 박태영이 스승으로 모시는 이현상에게 이와 같이 반발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권창혁의 충고를 들은 직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책, 127면.

45) 이병주, 『지리산』 4권, 기린원, 1985d, 109면.
당시 그가 쓴 반성문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나는 내 속에 깊이 잠재해 있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한시바삐 청산해야 한다. 그 성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읽은 부르주아 소설 가운데 어느 것을 감동적으로 회상하는 버릇, 비당원인 친구에 대한 우정, 조그마한 타당성이 있어도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며 읽은 갖가지 학설에 대한 기억, 지배 계급이 효과적 지배를 위해 베푼 호의를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경사, 이러한 것은 인민의 전위에 서서 일하겠다는 역군에겐 백해무익한 관념의 함정이다."
이것은 정신병자가 쓴 기록이라고 해도 의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총명하다고 소문난 박태영이 이런 글을 쓰고 있었다.

46) 탈식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인도의 학자 아쉬스 난디는 식민주의의 청산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을 강조한다. "식민주의는 일종의 문화적 계속성을 나타내며 문화적 수하물을 수송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일제 말기의 교육적 상황이 지식의 식민성 문제를 낳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그 문제가 해방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수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쉬스 난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권창혁 또는 유태림이 강조하던 비판적 지성의 힘이 식민성을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 지성의 문제는 박태영을 통해 내부자의 자성이라는 형태로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당으로부터 제명된 경험은 박태영에게 자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반탁 운동을 지지했던 박태영에게 찬탁으로 노선을 바꾼 당의 공식적 노선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고, 이에 반발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당적을 제명당하고 세포책의 지위에서 강등된다. 이와 같은 굴욕을 거치며 박태영은 자신이 읽은 맑스의 사상에 기반하여 남로당 전술을 비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물사관의 유용성과 소련 공산당의 정책을 동일시하지 않으려 했던 권창혁의 엄밀한 태도,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자본』을 편견 없이 읽어볼 것을 강조했던 그의 교육방침이 박태영의 내면 속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47] 당으로부터 근신 명령을 받은 그가 오해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반동으로 낙인찍힌 최후의 고려공산당원 신용우와 만나고자 하는 것도 조선에서의 공산당 운동의 계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 박태영은 공산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에 대해 절감하게 되며, 공산주의 진영 내에 만연한 '철학의 빈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극단으로 치닫는 남로당 투쟁전략의 허술함과 남로당 지도부의 허위의식을 점차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박태영은 남로당의 논리를 내파시키고 있는 인물이다. 이와 같은 남로당 운동에 대한 비판은 〈관부연락선〉에서 유태림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것이지만, 박태영의 비판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기에 한층 더 깊은 울림을 지닌다.

박태영은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당과 거리를 두고 학문의 길을 선택하지만 결국 남로당 활동 전력이 문제되어 체포되게 되고 감옥 속에서 전쟁을

이옥순 역, 『친밀한 적』, 신구문화사, 1993, 30-31면.

47) 이병주, 앞의 책, 1985b, 279면. "내가 이곳을 찾은 것은 보광당 전체를 위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박군이 목표였다. 하영근 군은 박 군이 공산주의자가 될까 봐 겁내고 있다. 공산주의란, 이상하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일종의 고질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 하영근 군은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선 거다. 내가 절대로 박태영 군을 공산당으로 만들진 않겠다고....." "공산당이 되면 안 될 이유가 꼭 있는 겁니까?" "그건 차차 토론하기로 하고 우선 이 공산당의 바이블인 '자본론'을 읽어 보도록 하게. 상당히 어려운 책이지만, 천재라고 소문난 박 군이니까 서슴없이 권하는 거다."

맞게 된다. 전쟁은 박태영을 되돌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 몰아넣은 사건으로 그려지고, 박태영은 다시금 종군기자 활동과 같은 당의 일에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그는 국군에 쫓겨 지리산의 빨치산 부대에 합류하게 된다.

그런데 〈지리산〉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간 유형이 제시되는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다. 박태영은 빨치산 활동을 너무 쉽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사유한다. 그렇기에 그는 빨치산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의식은 공산당 화선입당을 거부하는 장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은 당적이 박탈된 채 싸우던 박태영의 공로를 인정하여 당적을 회복시켜 주려 하지만, 그는 이를 극구 거부하고 만다. 즉, 박태영 자신이 목숨을 걸고 빨치산 활동을 하는 것은 당을 위한 것도 공산주의 사상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가학적일 정도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오로지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박태영의 자기반성은 하준규의 체포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몇 남지 않은 자기 수하의 빨치산들을 모두 자수시키고, 홀로 산속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도 반복된다. 정전협정을 즈음한 시점에 이르면 '빨치산'이라는 기호는 곧 단독자적 주체의 선택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환유로 기능하게 된다. 남한에서 빨치산은 어디까지나 토벌 대상이었고, 북한은 1953년에 이루어진 남로당 숙청과 함께 빨치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다.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탄생한 존재였고, 지리산 자락에 엄연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나 끝내 남과 북 어디에서도 좌표를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빨치산이었다. 그리고 박태영은 '이름없는 존재'로 죽는 길을 자신의 운명으로 선택한다.

물론 박태영의 선택은 다분히 사변적이며 치기어린 낭만주의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망설임 없이 '죽을 수 있는 곳'을 택하는 박태영의 말로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태도라기보다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획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48] 그러나 박태영이 보여 주었던 자기갱신의 과정에 주목한다면 그의 선택이 자포자기에 가까운

것이라 폄하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박태영은 수많은 스승들을 만났고, 그들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주관을 정립해 나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형성된 것이 '회색의 사상'으로 명명된 중립주의였다.

앞서 본고는 유태림이나 박태영이 보여주었던 중립주의가 결코 양극단의 편의주의적 절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취한 '회색의 사상'은 이중의 공격을 감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박태영의 선택은 중립불가능의 시대와 함께 좌초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립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선택은 이데올로기나 진영 논리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토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평전이 지적한 것과 같이 모든 정치적 실천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이른바 자기 주체성에 대한 욕망은 그 자체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49] 특정한 진영을 선택하는 행위는 곧 다른 진영을 악마화하는 논리를 수반하게 되며, 절대적인 선은 절대적인 악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놓인다. 반면, 어떤 진영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을 설정하는 자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박태영이 해방기의 혼란 속에서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일 수 있는 자유"[50] 즉 어디에도 복속되지 않는 주체로서의 지위였다.

5. 나가며 : 정치공학의 시대 속 중립주의자의 고투

〈관부연락선〉은 지식인 유태림의 실천과정을 축으로 하여 식민지기부터 해방기에 이르는 역사적 도정을 묘파한 작품이다. 그는 공적인 교육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지적 공백기를 겪어야 했으며, 강제로 징집당한 후에는 인간 이

48) 최현주는 박태영의 세계에 대한 대응 양식이 가족로망스에서 업둥이가 가진 무의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밝히면서, 세상을 잘 모르는 업둥이가 도피나 거부를 통해 사회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이 박태영 역시 부조리한 현실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결과 운명으로 도피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현주, 「국가로망스로서의 이병주의 『지리산』」, 『한국문학이론연구』 제55집, 한국문학이론학회, 2013.

49) 이평전, 앞의 글.

50) 이병주, 앞의 책, 1985c, 153면.

하의 대우를 감내해야만 했다. 제국의 노예로 전락한 삶은 그로 하여금 주인의 지위를 갈망하도록 한 계기를 제공했다. 해방 이후 유태림은 두 방향의 실천을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주체를 구성해 나가게 되는데, 하나는 지식의 진공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 교육을 재건하고자 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극심한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굳건하게 중립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일이었다.

유태림이 견지했던 비판적 지성의 문제가 주체 확립이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심화되고 있는 소설이 곧 〈지리산〉이다. 〈지리산〉의 주인공 박태영은 실천적 투쟁을 통해 신념에 대한 가치를 신뢰하게 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비판적 지성을 통해 사태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인간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줄 아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 공히 이와 같은 비판적 주체가 온존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겪어내야 했던 시대의 폭력성을 함의한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교육의 식민성의 문제와 그로 인한 지적 공백상태의 문제, 이를 메우기 위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외래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결국 극복되지 못한 지식과 교육의 식민성 문제는 해방기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 혼란은 전쟁을 통해서만 정리될 수 있었다는 것이 작가 이병주의 냉정한 현실진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이 그려내는 시공간, 즉 식민지기부터 해방기, 한국전쟁기, 그리고 소설이 창작된 1960-70년대의 한반도를 관통했던 키워드는 정치공학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정치를 욕망한 시대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은 부재했고, 이로 인한 지적 공백은 모두가 손쉬운 해결책에 몰두하도록 만들었다. 식민지 청산과 분단체제의 극복은 민족감정에 냉전적 국제관계까지 더해진 고차방정식에 다름 아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편가르기의 논리는 실로 명징한 해결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존을 위한 피아식별의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쉽게 개입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본고는 유태림과 박태영이 견지한 중립주의가 결코 편의주의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오히려 그것은 동지를 잃고 두 배의 적을 키우는

‘형극의 길’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색인’으로 남고자 한 것은 正義에 대한 定義를 그들 스스로가 내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고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중립주의의 쓰디쓴 실패담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병주는 소설에서의 패배가 곧 소설로서의 패배로 귀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는 듯하다. 유태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이규는 한반도를 등지고 떠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 박태영의 서사는 끝내 ‘빨치산의 길’을 발견해낸다. 비로소 자아는 지난한 지적 편력을 끝내고 세계와 맞서 싸우는 최초의 풍경을 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이병주, 『지리산』 1-7권, 기린원, 1985a-g.
_____, 『관부연락선』, 동아출판사, 1995.
_____, 「제 4막」, 『마술사』, 한길사, 2006.

곽상인,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인물의 내면의식 고찰—유태림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60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257-272면.
김건우, 「운명과 원한—조선인 학병의 세대의식과 국가」, 『서강인문논총』 제52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8, 105-135면.
김경미, 「식민지교육 경험 세대의 기억—경기공립중학교 졸업생의 일제 파시즘 교육체제 하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27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5, 1-28면.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배게, 1975.
김성학, 「해방직후 교원단체의 등장과정과 활동을 통해 본 식민지 교육경험의 지속과 변동」,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23-52면.
김성환, 「식민지를 가로지르는 1960년대 글쓰기의 한 양식—식민지 경험과 식민 이후의 관부연락선」,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6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301-344면.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성신여대 출판부, 2006.
김외곤, 「이병주 문학과 학병 세대의 의식구조」, 『지역문학연구』 제12호, 경남지역문화학회, 2005, 9-33면.
김윤식, 『이병주와 지리산』, 국학자료원, 2010.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1973.
김학준, 『한국전쟁—원인, 과정, 휴전, 영향』(수정증보판), 박영사, 2010.
노현주, 「정치의식의 소설화와 뉴저널리즘—이병주의 〈관부연락선〉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42집, 우리어문학회, 2012, 351-360면.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나남, 1996.
박연희, 「해방기 '중간자' 문학의 이념과 표상 : 김기림의 민족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6집, 상허학회, 2009, 307-349면,
박중렬, 「실록소설로서의 이병주의 〈지리산〉론」,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173-192면.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역, 일월서각, 2001.
소진철, 『한국전쟁 어떻게 일어났나』, 한국학술정보, 2008.
아쉬스 난디, 이옥순 역, 『친밀한 적』, 신구문화사, 1993.
오코노기 마사오, 현대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 미국의 개입과정』, 청계연구소, 1986.
와다 하루끼,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이완범, 『한국전쟁—국제전적 조망』, 백산서당, 2000.
이정석, 「학병세대 작가 이병주를 통해 본 탈식민의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제33집, 한중인문학회, 2011, 111-133면.
이평전, 「이병주 소설에 나타난 인정투쟁의 논리와 전개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2집, 한국문학과 비평학회, 2018, 37-59면.
정미진, 「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 혹은 휴머니스트—이병주 사상 재론」, 『배달말』 제63집, 배달말학회, 2018, 469-496면.
정호웅, 「해방 전후 지식인의 행로와 그 의미—이병주의 〈관부연락선〉」, 『현대소설연구』 제24호, 2004, 73-92면.
최봉대, 「한국전쟁의 기원과 그 성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태암, 1990, 15-53면.
최현주, 「〈관부연락선〉의 탈식민성 연구」, 『배달말』 제48집, 배달말학회, 2011, 153-173면.
_____, 「국가로망스로서의 이병주의 『지리산』」, 『한국문학이론연구』 제55집, 한국문학이론학회, 2013, 323-346면.
황호덕, 「끝나지 않는 전쟁의 산하, 끝낼 수 없는 겹쳐 읽기—식민지에서 분단까지, 이병주의 독서편력과 글쓰기」, 『사이』 제10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 9-62면.

【Abstract】

The Age of Impossibility for the Neutralism and the Coordinates of Gray Color —Mainly about the Representations of Knowledge in Lee, Byung-Ju's *The Gwan-Bu Ferry Ship* and *The Mountain Jiri*—

Lee, Kwang-Ouk*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Lee's awareness of the problem in *The Gwan-Bu Ferry Ship* and *The Mountain Jiri*. The main characters of the two novels are portrayed as those who try to maintain neutrality in the face of intense ideological confrontation. This attitude has been a target of criticism, referred to as 'gray thinking'. However, Lee's neutrality should be seen as a product of his will to maintain his faith, even while enduring criticism from both sides, and a problem of colonialism that has still not been overcome after liberation.

What's noteworthy is that Lee Byung-joo spends considerable weight on portraying the main character's intellectual bias and self-consciousness as an intellectual in the process of shaping neutrality. Yoo Tae-rim and Park Tae-young are figures who experienced an intellectual hiatus through the end of the colonial era, whe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collapsed. Even school institutions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reduced to a channel for mobilizing student soldier, and reading, which was the only way to satisfy their intellectual yearnings, was often considered rebellious action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book. To intervene in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se times is soon was forced to as a political context.

Furthermore, the novel, *The Gwan-Bu Ferry Ship* and *The Mountain Jiri* can be seen as a kind of relationship. Yoo Tae-rim and Park Tae-young share common ground in that they were the so-called student soldier generation, but their subsequent moves show a significant contrast. Yoo Tae-rim become a teacher after liberation and meddles students who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ideologic side logic and tries to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hildren's Literature and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maintain a balanced view. However, with the assassination of Yeo Un-hyung, he is now engaged in a campaign against the single government in earnest, and he is missing along with the Korean War. The second half of *The Mountain Jiri* begins at the point where the epic of *The Gwan-Bu Ferry Ship* has stopped, after which Park Tae-young takes the path of being a partizan alone, criticizing liberalism, nihilism and communism. The fundamental desire he found at the end of his last intellectual quest was to have a status as an agent who was not subjugated to anything. Although their story boils down to the failure of neutrality, Lee wanted to show that failure in novel was not a failure as a novel.

Keywords: Lee Byung-Ju, *The Gwan-Bu Ferry Ship*, *The Mountain Jiri*, Knowledge, Neutralism, Gray thinking.

접수일: 2019.06.26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16